

서울 시민이라면 별도 증상 없이도 코로나19 무료검사

박원순 서울시장 정례브리핑
“최근 확진자 수도권 집중되고 있어 사후적·선제적 대응 동시 진행”
홍보관 형태 집회 집합금지 명령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 검사 규모를 확대해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서울시민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2차 파도를 앞둔 폭풍전야 상황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현재 추적과 차단 중심의 사후적, 동시적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용한 전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 ▲콜센터와 같은 밀접 사업장 ▲요양·정신병원 ▲요양보호사와 대리운전자 등 방문업 및 돌봄분야 종사자 ▲노숙인 ▲무자격체류외국인 ▲유형업소 종사자 ▲개척교회·소규모 종교시설 목회자와 교인 ▲무인스터디 카페, 무인빨래방 등 방역전담관리자가

없는 무인시설 ▲놀이공원, 수영장시설과 같은 실외여가시설 ▲대형서점, 생활용품점, 맛집 등 다수 시민이 방문하는 실내편의시설 ▲소규모 사적모임 ▲학술 행사나 시험처럼 일회성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같은 학생이용집합시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집단감염 취약 시설로 판단해 검사를 제한한 시설을 추가로 선정,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증상에 관계없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 하반기 선제검사 가능 규모를 약 20만명으로 추산했다.

시는 조용한 전파자의 증가를 코로나2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징조로 보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매일 20명이 넘는 신규환자가 속출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5월 중순 2.5%에서 이달 초 13.2%로 5배 넘게 늘었다. 최근 2주간 전국 신규확진자의 91.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서면서 감염 속도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긴밀한 초기 대응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힘겹게 막고 있지만 약삭빠른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통한 확산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제 검사위원회를 통해 고위험 집단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는 방문판매업체에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막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전국에서 49

명, 서울에서만 30명이 나왔다.

박 시장은 “리치웨이 집단감염의 경우 확진자의 75%가 고령층이어서 환자의 상태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8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방문판매업체의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시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업체, 방문판매사업장 등 3개 위험업종 총 733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리고 전 사업장을 방문 점검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리치웨이처럼 무등록, 불법영업사업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시는 자치구, 특별사법경찰관과 무등록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도 주변에 의심 사업장이 있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공연예술단체·기획사에 50억 지원

500곳 선정, 최대 1000만원씩
지원금 중 50% 이상 인건비 집행

서울시는 연극·음악·국악·무용·뮤지컬·아동청소년 공연 등 6개 장르의 공연 예술단체나 기획사 500여곳에 최대 1000만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올해 7~12월에 실내·외 공연이 예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는 공연장 휴관이나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단체 및 기획사에 인건비 등 공연 제작을 위한 직접 비용을 지원

한다. 지원금 중 50% 이상은 공연 취소로 일자리를 잃은 공연예술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출연자·스태프 등 직접 인건비로 집행돼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나 산하 기관의 예술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단체를 우선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나 기획사는 전통시장, 공원 등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에 약 5000여건의 신청이 들어와 이 중 860건을 선정해 총 65억원을 지원했다.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은 업종 중 하나다. 공연예술 통합 예술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내 공연에

술업계 매출액은 올해 1월 약 400억원에서 4월 36억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내에 1550개 있는 민간공연단체는 대부분이 영세 업체로, 평균 인력수는 10.3명이고 비정규직 비율은 90%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폐업과 실직의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창작활동 재개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재개해 향후 시민들이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대공원, 아기낙타 ‘거봉’ 탄생

서울대공원이 지난달 8일 오후 1시에 암컷 단봉낙타가 태어나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아기 낙타 이름은 ‘거봉’이다. 아빠 ‘포도’와 엄마 ‘주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진은 수유 중인 낙타 모녀 ‘주스’와 ‘거봉’.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최고 뉴스는... ‘코로나 우수대응’

서울교통공사 창립 기념 시민투표
‘2019년 수송인원 27억명 달성’ 2위

서울교통공사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실시한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서울 지하철 최고 뉴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수대응’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 동안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총 6712명의 온라인 시민 투표로 진행됐다. 총 17개 후보 뉴스 중 시민이 직접 상위 3개 뉴스를 선정, 득표율 순으로 최종 10대 뉴스를 가렸다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뉴스는 총 5490표(득표율 81.79%)를 받은 ‘코로나19 대응 우수’였다.

이어 ‘명실상부한 시민의발, 2019년 수송인원 27억2000명 달성’이 2127표(득표율 31.69%)를 기록하며 뒤를 이



서울 지하철 방역 모습. /서울교통공사

었다.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지하철 안전과 편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2호선 신형 전동차 도입’은 1861표(득표율 27.73%)로 3위로, ‘안전 5중방호벽 기반 안전 고신뢰 조직 구축’은 1566표(득표율 23.33%)를 받아 4위에 올랐다.

이 외에 ‘넓은 지하철역의 문화예술 공간화’ ‘지하철역에 생긴 첨단 농장, 메트로팜’ 뉴스도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장애인 응원 릴레이 캠페인

‘마음은 항상 서로 공존’ 메시지

서울시는 장애인을 응원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마음은 항상 서로 공존한다”는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 내용은 “우리, 여기, 함께”를 수어로 표현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장애인인식개선, #우리여기함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등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것이다.

이달 1일 시작된 캠페인에는 방송인 김정난 씨, 홍경민 씨, 간미연 씨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길거리 쓰레기통 657개 확대 설치

추가 설치 완료시 6940 → 7597개
이용 빈도가 낮은 곳은 위치 변경

서울시는 올해 길거리(가로) 쓰레기통 657개를 확대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시내 길거리 쓰레기통은 6940개에서 7597개로 늘어난다.

서울의 길거리 쓰레기통은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 7607개 있었다. 이후 가정·사업장 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이기 시작, 2007년에는 3707개로 감소했다.

그러자 불편 호소 민원이 증가했고 시는 2013년 ‘가로 휴지통 증설·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쓰레기통을 늘려왔다. 올해 증설이 끝나면 서울의 길거리 쓰레기통은 종량제 시행 시점인 2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아울러 시는 기존 길거리 쓰레기통 상태를 조사해 이용 빈도가 낮은 장소의 쓰레기통은 적절한 위치로 옮길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관악구에 설치된 항아리형 쓰레기통. /서울시

서울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960개가 있다. 강동구(436개), 중구(360개), 구로구(325개), 종로구(304개), 송파구(301개) 등이 상위권이다. 반면 노원구(54개), 중랑구(76개), 동대문구(172개)는 적은 편이다.

권선조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로 쓰레기통의 수요변화를 파악하고,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가로 쓰레기통을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